



2012년 7월 20일(금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7월중 필라델피아 경기지수 예상 하회
- 2) 6월중 기존주택 판매건수 8개월래 최저 기록
- 3) 미대선 최대변수는 「경제」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유로존 재무장관, 스페인 구제금융 승인
- 2) 피치社, 일본대형은행 3곳 신용등급 강등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유럽 자동차 제조사 푸조, 도요타자동차 위탁 생산 결정
- 2) 혼다·포드 자동차, 차량 결함으로 33만여대 리콜
- 3) 삼성-애플 소송전 담당 판사는 한국계 미국인 女판사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7월중 필라델피아 경기지수 예상 하회

- 지난 7월19일(현지시간) 필라델피아 연준(FRB)은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현황을 보여주는 경기지수가 7월중 -12.9를 기록, 전월중 -16.6에 비해 소폭 반등했다고 발표
- 한편 이번 결과는 전문가 예상치 -6.8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7월까지 3개월째 마이너스를 나타내며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

2) 6월중 기존주택 판매건수 8개월래 최저 기록

- 지난 7월19일(현지시간) 전미중개인협회(NAR)는 지난 6월중 기존주택 판매건수가 전월비 5.4% 감소한 연율 437만 건으로 집계, 지난 5월중 기존주택 판매건수는 기존 455만 건에서 462만 건으로 상향 조정됐다고 발표
 - 금번 결과는 지난 2011년 10월 이후 8개월래 최저이며, 전문가 예상치 462만 건보다도 낮은 결과
 - 다만 전년대비로는 4.5% 증가,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
- 한편, 6월중 판매된 기존주택 중간 가격은 18만9,400달러로 전년의 17만 5,600달러 대비 7.9% 상승
 - 전문가들은 중각 가격 상승 압류주택과 저가형 주택의 판매 비중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분석
 - 실제로 지난 6월중 압류 주택과 가격이 대폭 떨어진 주택은 전체 기존 주택 판매건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바 있음
-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이 모멘텀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, 다만 법적 리스크 때문에 압류가 다소 신중해졌고 새로운 모기지 승인이 둔화됐기 때문에 기존주택 판매건수가 감소했다고 평가

3) 미 대선 최대 변수는 「경제」

- 지난 7월19일(현지시간) 뉴욕타임스(NYT)는 최근 CBS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,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운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가운데 39%만 만족, 절반 이상인 55%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변했다고 보도
- 이는 지난 봄 이후 미국 경제가 다시 지지부진해진 데 따른 결과란 분석
 - 지난 4월중 설문 당시 미국 경제는 상승 모멘텀을 얻는 듯 보였고, 조사결과 44%가 만족한다고 답했고, 48%가 못마땅하다고 응답한바 있음
- 공화당 대통령 후보 롬니 처음으로 오바마 지지율 추월
 - 지금 대통령을 뽑으면 누구를 택하겠냐는 질문에서도 응답자 가운데 45%는 롬니를 택했고 오바마는 43%에 그침
- 이는 결국 미국의 대선이 여전히 경제 문제와 깊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
 - 실제로 경제 관련 이슈에 유권자들의 지지율이 민감하게 움직인 반면 오바마 진영이 롬니의 세금 문제 등을 열심히 부각시켜 비판했지만 롬니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는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
 - 또한 최근 건강보험법에 대한 대법원의합헌 판결 등도 오바마에게 그다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-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, 누가 미국인들이 고민하는 문제를 잘 해결해줄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오바마의 지지율이 롬니를 여전히 크게 앞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유로존 재무장관, 스페인 구제금융 승인

- 지난 7월20일(현지시간)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화상회의를 통해 유럽연합(EU)이 스페인 정부와 합의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(MOU)를 수용, 최대 1000억 유로의 지원을 최종 승인
 - 이날 오후 열린 EU 집행위원회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로 승인된 것은 금번 구제금융 지원이 스페인 은행권을 견실하게 만들어 스페인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
- 이에 따른 첫 자금집행은 유럽재정안정기금(EFSF)을 통해 300억 유로 규모로 이뤄질 예정
 - 여기에는 긴급 상황에 대비한 준비금 성격의 100억 유로도 포함됨

2) 피치社, 일본대형은행 3곳 신용등급 강등

- 지난 7월20일(현지시간)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 대형은행 미츠비시UFJ, 미즈호 파이넬셜, 스미토모 미츠 등 세 곳의 신용등급을 기존 A 등급에서 A-로 한 단계씩 강등했다고 발표
 - 피치社는 성명에서 앞서 일본의 국채 등급을 내린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금융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능력이 약화됐다는 점을 반영했다며 등급 강등 배경을 설명
- 아울러 피치社는 지난 5월 정부의 부채 비율이 높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AA에서 A+로 두 단계 낮춘바 있음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유럽 자동차 제조사 푸조, 도요타자동차 위탁 생산 결정

- 지난 7월20일(현지시간)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프랑스 북부에 있는 푸조 시트로앵 그룹의 세블노아 공장이 도요타 자동차를 위탁 생산하기로 했다고 보도
 - 푸조는 내년부터 연간 5천대에서 1만대 정도를 생산할 전망이며, 다음주초 이와 관련해 도요타자동차와 합의서에 서명할 계획
 - 도요타는 푸조에서 위탁 생산한 자동차에 자사의 로고를 넣어 판매할 방침
- 전문가들은 푸조는 도요타 자동차를 생산함으로써 판매 부진에 빠진 공장 가동률을 개선하고 도요타는 프랑스 푸조 공장을 수출 거점으로 삼아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

2) 혼다 및 포드 자동차, 차량 결함으로 33만여대 리콜

- 지난 7월19일(현지시간) 일본 혼다자동차는 문 잠금장치에 결함이 있는 생산 차량 32만여대를 리콜 중이라고 발표
 - 리콜 대상은 2012년형 CR-V SUV와 2013년형 아큐라 ILX 세단으로 이 중 31만4천대가 주로 일본, 북미, 중국, 남미에서 팔린 CR-V 모델이며 약 7,300대는 아큐라 모델
- 혼다는 문 잠금장치 이상으로 탑승자가 차량 내부에서 문손잡이와 도어락을 동시에 작동시킬 경우 차량 문이 잠기지 않는 등 위험성이 있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힘
- 한편 미국 포드 자동차도 이날 신형 포드 이스케이프 SUV 1만1,500대를 리콜 조치, 포드 이스케이프의 연료관이 파열해 기름이 새면서 엔진에 불이 날 수 있다며 무상수리가 끝날 때까지 운전하지 말라고 경고
 - 리콜 대상은 1.6리터 4기통 엔진을 탑재한 2013년형 이스케이프로 미국과 캐나다에 출시한 1만1,500대 중 4,800대가 판매된 상태

3) 삼성-애플 소송전 담당 판사는 한국계 미국인 女판사

- 지난 8월19일(현지시간) 워싱턴포스트(WP)는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고 판사가 지난달 삼성전자 갤럭시탭 10.1의 미국 내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련업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소개
 - 이번 판결은 태블릿PC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갤럭시탭 10.1은 애플 아이패드와 맞붙을 몇 안 되는 태블릿PC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
 -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애플과 삼성의 경쟁을 중단시키는 일을 했으며, 이는 애플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고 평가
 - 고 판사는 지난달 미국 내 갤럭시탭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삼성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나 이는 특허권을 위반한 제품으로 불공정하게 경쟁하라는 것은 아니며, 갤럭시탭 판매가 계속되면 애플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힘
- 한편, 고 판사는 지난 1968년 미국 워싱턴DC에서 태어나 1993년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한국인 2세로 고 판사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10년간 근무해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애플과 삼성 간의 특허권 분쟁을 맡기에 가장 이상적인 인사라고 WP는 설명